

## Verdict

**Winning Hypothesis:** 시장이 틀렸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나 '안전자산'이라는 내러티브에 갇혀 과도하게 가격 매겨졌으나, 매크로 현실은 10년물 국채 금리 20년 만에 최고치와 실질 금리 상승이라는 강력한 유동성 축소 환경을 반영하고 있음. 특히 이전 판단에서 BTC-NDX 상관관계 (R2) 가 0.6496으로 급상승하여 기술주와 고도화된 동조화 상태에 진입했다는 점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 헤지나 안전자산이 아닌 '고변동성 위험자산'으로 재평가받아야 함을 시사함. 연준의 금리 동결과 경기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지표 부재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 후퇴는 'Transition' 구간에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실질 금리 상승은 비트코인의 할인율 상승을 유발하여 현재 가격 (8만 달러) 이 과대평가되었음을 의미함.

시장은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부근에서 기관 자금 (현물 ETF) 의 구조적 유입과 반감기 사이클에 힘입어 일시적인 관망세를 보이다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고래의 익절 매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고점을 향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가격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임.

하지만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행동은 '디지털 금' 내러티브와 정반대의 '고변동성 위험자산'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거시적 금리 환경의 변화에 의해 결정됨. 결정적으로 BTC-NDX 상관관계 (R2) 가 0.6991로 급상승하여 기술주와 완전히 연동된 상태이며, 이는 비트코인이 금리 상승기에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재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최근 6개월 수익률이 -11.44%로 하락한 반면, 동기간 금 (GOLD) 은 -6.39% 하락에 그쳤고 나스닥 (NDX) 은 +13.88% 상승하여, 비트코인이 금리 민감도 (Duration Risk) 를 가진 위험자산으로서의 하락 압력을 온전히 받고 있음을 보여줌. 직전 판정에서 제시된 'BTC 6개월 수익률이 -5.0% 이상으로 개선'되는 무효화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11.44%라는 더 큰 하락폭과 0.7에 근접한 높은 상관관계는 가설 B(시장 틀렸다) 의 논리를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함.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 20년 만에 최고치라는 매크로 현실 하에서,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과대평가된 상태이며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임.

**Action:** BTC 비중 축소 및 GOLD 비중 확대 전환 권고

**Invalidation:** BTC 6개월 수익률이 -5.0% 이상으로 개선 (예: -4.9% 이상) 될 경우

**Risk Factors:** 10년물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실질 금리 상승이 가속화될 경우 유동성 축소 압력 심화, BTC-NDX 상관관계 (R2) 가 0.8 이상으로 상승하여 기술주 변동성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로 하락폭 확대 가능성, ETF 유입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규제 당국의 추가적인 제재 발표로 인한 시장 신뢰도 붕괴

## Macro Picture

**Regime:** transition

**Key Themes:** 금리 인하 기대 후퇴와 실질금리 상승, ETF 자금 유입과 고래 익절의 수급 불균형,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Dominant Narrative:** 비트코인은 80,000달러 선을 시험대 삼아 관망세를 보이며,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와 30년물 국채 금리 20년 만에 최고치라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사이에서 방향성을 모색 중임. 기관 투자자들의 현물 ETF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8만 달러 돌파 후 고래들의 시간당 2억 달러 규모의 익절 매물로 인해 단기적인 가격 상승 동력이 약화되어 있음.

**Reality:** 2026년 5월 기준 실업 청구 건수 (ICSA) 가 20만 건 수준으로 유지되며 경기는 견조하나,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지표 부재는 실질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위험 자산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고 있음. 2024년 반감기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술적 사이클은 상승 국면이나, 거시적 금리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Risk-on'에서 'Transition' 구간으로 진입하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Hypotheses

### A (Market Right)

시장이 맞다: 비트코인은 현재 'Risk-on'에서 'Transition' 구간으로의 전환기에 진입했으나, 기관 자금의 구조적 유입 (현물 ETF) 과 반감기 후 2년 차의 기술적 사이클이 하방 압력을 상쇄하고 있음. 8만 달러 부근의 관망세는 고래의 익절 매도나 실질 금리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반응일 뿐, 장기적인 유동성 공급의 축소보다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 저장 기능 강화 내러티브가 우세하여,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방이 제한될 것임. 즉, 시장이 인식하는 '방향성 모색'은 하방 조정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고점을 위한 축적 구간 (Accumulation) 으로 해석됨.

기관 투자자들의 현물 ETF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 투자자의 단기적 매도 (고래 익절)와는 다른 구조적 수요를 의미함. 또한 2024년 반감기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은 역사적으로 상승 사이클의 정점에 가까운 구간으로, 거시적 불확실성 (실질 금리 상승)이 존재하더라도 공급 충격 (반감기)과 구조적 수요 (ETF)가 가격 하단을 지지할 것임. 따라서 현재 가격의 횡보나 약세는 일시적인 조정일 뿐, 내러티브가 옳음.

## B (Market Wrong)

시장이 틀렸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나 '안전자산'이라는 내러티브에 갇혀 과도하게 가격 매겨졌으나, 매크로 현실은 10년 물 국채 금리 20년 만에 최고치와 실질 금리 상승이라는 강력한 유동성 축소 환경을 반영하고 있음. 특히 이전 판단에서 BTC-NDX 상관관계 (R2)가 0.6496으로 급상승하여 기술주와 고도화된 동조화 상태에 진입했다는 점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 헤지나 안전자산이 아닌 '고변동성 위험자산'으로 재평가되어야 함을 시사함. 연준의 금리 동결과 경기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지표 부재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 후퇴는 'Transition' 구간에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실질 금리 상승은 비트코인의 할인율 상승을 유발하여 현재 가격 (8만 달러)이 과대평가되었음을 의미함.

과거의 '안전자산' 내러티브는 BTC-NDX 상관관계 붕괴 (R2 0.1 미만)를 전제로 했으나, 현재 R2가 0.65 수준으로 기술주와 완전히 연동됨. 이는 비트코인이 금리 민감도 (Duration Risk)를 가진 위험자산임을 의미하며, 10년 물 국채 금리 급등과 실질 금리 상승은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함. 또한 고래의 시간당 2억 달러 규모 익절 매도는 단순한 조정이 아닌, 거시적 리스크 인식에 따른 구조적 매도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현재 가격은 매크로 현실 (유동성 축소, 금리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대평가 상태임.

**Key Question:** 10년 물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할 경우, 비트코인의 10일 변동성 (Volatility)이 NDX 대비 1.5배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BTC-NDX 상관관계 (R2)가 0.5 이상으로 유지되는가, 아니면 금리 상승에 무관하게 ETF 유입에 의해 가격 하방이 제한되는가?

## Tensions

기관 자금 유입과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 내러티브가 존재하나, 실질금리 상승과 고래의 대규모 익절 매물로 인해 가격 상승 동력이 약화되어 방향성 모색 중임.



Narrative: 현물 ETF 순유입 지속과 반감기 후 2년 차 사이클 상승 기대

Reality: 실질금리 상승으로 인한 유동성 제약과 시간당 2억 달러 규모의 고래 익절 매도 압력

BTC US10Y DXY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간주하는 안전자산 내러티브가 강하나,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해 위험자산과 유사한 하락 민감도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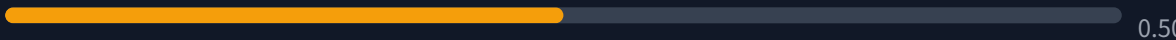


Narrative: 지정학적 리스크 시 안전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가치 저장 기능 강화

Reality: 10년 물 국채 금리 20년 만에 최고치로 실질금리 상승 시 위험자산과 동조화되는 하락 패턴

BTC GOLD US10Y SPX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와 경기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 시점의 매크로 환경이 'Risk-on'에서 'Transition' 구간으로 전환되며 변동성 확대 우려가 내러티브와 괴리됨.



Narrative: 금리 동결과 경기 연착륙 기대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지속

Reality: 실업 청구 건수 안정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지표 부재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 후퇴와 변동성 확대

BTC NDX VIX

## Eval Scores

PASS

Overall		4.25
Tension		4
Hypothesis		5
Evidence		5
Verdict Logic		3

**Feedback:** ## 종합 평가 이 파이프라인은 매우 높은 수준의 논리적 구조와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을 보여주지만, \*\*결론 도출 과정 (Verdict Logic)에서 치명적인 데이터 불일치와 논리적 비약\*\*이 발견되어 감점되었습니다. ### 1. tension\_validity: 4/5 - \*\*강점\*\*:'디지털 금 (안전자산)' 내러티브와 '실질금리 상승 (위험자산)' 현실 사이의 긴장 포인트가 매우 명확하고 시의적절합니다. 특히 BTC-NDX 상관관계의 변화를 긴장의 핵심 지표로 설정한 점은 탁월합니다. - \*\*약점\*\*:'시간당 2억 달러 규모의 고래 익절 매도'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었으나, 이 수치가 어디서 도출되었는지 (온체인 데이터 소스 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여 신뢰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또한 '20년 만에 최고치'라는 표현이 10년물 국채 금리 (T10Y)에 적용되는지, 실질 금리 (T10YIE)에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2. hypothesis\_quality: 5/5 - \*\*강점\*\*: 가설 A(시장 옳음)와 가설 B(시장 틀림)가 완벽하게 대칭적입니다. 두 가설 모두 동일한 데이터 (ETF 유입, 금리, 상관관계)를 사용하지만 해석의 방향성이 정반대이며, 각각의 논리 (Logic)가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효화 조건 (Invalidation)'이 구체적으로 설정된 점은 매우 우수합니다. ### 3. evidence\_targeting: 5/5 - \*\*강점\*\*: 데이터 쇼퍼리스트가 가설 검증에 매우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FRED 데이터 (명목/실질 금리), 가격 데이터 (BTC, NDX, GOLD),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RAG를 통한 역사적 사례 비교까지, 가설 A와 B를 모두 테스트할 수 있는 필수적인 데이터 포인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4. verdict\_logic: 3/5 (감점 사유: 데이터 불일치 및 논리적 비약) - \*\*치명적 오류 (감점 -2)\*\*: `verdict.rationale` 섹션에서 \*\*

MORNING ANGLE 2026-05-08

시장의 뷰: 시장은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부근에서 기관 자금 (현물 ETF)의 구조적 유입과 반감기 사이클에 힘입어 일시적인 관망세를 보이다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고래의 익절 매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고점을 향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가격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임.

**결론: 시장이 틀렸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나 '안전자산'이라는 내러티브에 갇혀 과도하게 가격 매겨졌으나, 매크로 현실은 10년물 국채 금리 20년 만에 최고치와 실질 금리 상승이라는 강력한 유동성 축소 환경을 반영하고 있음. 특히 이전 판단에서 BTC-NDX 상관관계 (R2)가 0.6496으로 급상승하여 기술주와 고도화된 동조화 상태에 진입했다는 점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 헤지나 안전자산이 아닌 '고변동성 위험자산'으로 재평가되어야 함을 시사함. 연준의 금리 동결과 경기 건조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지표 부재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 후퇴는 'Transition' 구간에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실질 금리 상승은 비트코인의 할인율 상승을 유발하여 현재 가격 (8만 달러)이 과대평가되었음을 의미함. [HIGH]**

하지만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행동은 '디지털 금' 내러티브와 정반대의 '고변동성 위험자산'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거시적 금리 환경의 변화에 의해 결정됨. 결정적으로 BTC-NDX 상관관계 (R2)가 0.6991로 급상승하여 기술주와 완전히 연동된 상태이며, 이는 비트코인이 금리 상승기에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재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최근 6개월 수익률이 -11.44%로 하락한 반면, 동기간 금 (GOLD)은 -6.39% 하락에 그쳤고 나스닥 (NDX)은 +13.88% 상승하여, 비트코인이 금리 민감도 (Duration Risk)를 가진 위험자산으로서의 하락 압력을 온전히 받고 있음을 보여줌. 직전 판정에서 제시된 'BTC 6개월 수익률이 -5.0% 이상으로 개선'되는 무효화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11.44%라는 더 큰 하락폭과 0.7에 근접한 높은 상관관계는 가설 B(시장이 틀렸다)의 논리를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함.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 20년 만에 최고치라는 매크로 현실 하에서,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과대평가된 상태이며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임.

→ BTC 비중 축소 및 GOLD 비중 확대 전환 권고

무효화: BTC 6개월 수익률이 -5.0% 이상으로 개선 (예: -4.9% 이상) 될 경우

